

광주시, 시내버스요금 또 올리나

광주시내버스 승객과 운송수입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지원금은 오히려 증가세여서 광주시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특히 해마다 늘어나는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한 상태다. 광주시가 늘어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을 감당하기 위해 버스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운영된 지 10년도 채 안돼 누적 지원금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 광주시는 2006년 말 버스 재정을 지원하고, 운영은 회사가 맡는 준공영제를 도입, 운영에 들어갔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선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물가인상과 시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07년부터 본격

준공영제 9년... 지원금만 3152억원 '눈덩이'

적자 늘어 인상 불가피...물가 영향 '시민 눈치'

지원한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이 3152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가(假)정산한 2015년 지원 예상규모는 532억원으로 처음으로 500억원대를 넘어섰다.

더 큰 문제는 버스 이용 승객은 2010년(1억6140여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고 있는데도 지원금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이용 승객은 1억4330만명으로 2010년보다 200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운송수입도 최고였던 2013년 1308억원에서 지난해 1263억원으로 45억원이나 줄었다. 운송원가 대비 수입을 나타내는 운송수지도 첫째 85.6%에서 꾸준히 하락해

2015년에는 70.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년간 이어진 저유가로 연료비 부담이 줄었는데도 지원금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연료절감, 공영제 개선안 마련 등을 통해 지원금을 줄이려고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전체 운송원가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인건비는 꾸준히 올라 2007년 823억원에서 지난해는 1164억원으로 341억원이나 인상됐다.

버스 1대당 재정지원금은 도입 첫째 2100만원에서 지난해 기준 5100만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인상

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생각이다. 시내버스 요금은 2011년 7월 인상 이후 5년간 동결됐다.

요금 인상은 타당성 용역을 거쳐 시의회 보고, 불가정책임위원회 의결 등 절차가 까다롭다. 무엇보다 단체장 의지가 중요하다.

광주시의 더 큰 고민은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 만큼 서비스 개선이 뒤따라지 못한다는 시민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공영제 개선안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노선 확대에 따른 버스 증차, 무료환승객 증가 등으로 지원금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현제 한국의 재정 수준은 여타 선진국이나 주변국과 비교해 탄탄한 편이다. 그러나 작년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해본 결과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국가채무가 현재 40%대에서 60%대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선제적인 건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재정준칙 유형을 면밀히 검토해 한국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채무준칙',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지출준칙', 이밖에 '수입준칙'이나 '수지준칙' 등 다양한 방안 가운데 구체적인 도입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법으로 재정 누수 방지 저대 야당 설득이 관건

정부, 재정준칙 명문화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재정준칙을 명문화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큰 줄기로 하는 전방위적 재정개혁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함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 이전까지 만들어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의 재정 수준은 여타 선진국이나 주변국과 비교해 탄탄한 편이다. 그러나 작년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해본 결과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국가채무가 현재 40%대에서 60%대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선제적인 건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재정준칙 유형을 면밀히 검토해 한국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채무준칙',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지출준칙', 이밖에 '수입준칙'이나 '수지준칙' 등 다양한 방안 가운데 구체적인 도입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개선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한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재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회보험은 향후 고갈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장기재정전망 틀 안에서 정부와 연계·협의를 강화하는 등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한다.

정부는 각종 재정사업이 진행되는 전 단계에 걸쳐 '새는 돈'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100억원 이상 비보조사업의 경우 추진에 앞서 적격성을 따져보는 사전심사를 도입한다. 보조사업은 내년부터 사전심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비효율·낭비 사업을 관계부처와 재정당국이 직접 살펴보는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한다. 단 한 번이라도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가 걸린 사업자를 즉시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는 '보조금 윈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제도를 도입 첫해엔 올해부터 강력히 시행한다.

비효율·낭비사업 심층평가와 국고보조사업 일몰평가 등을 통해 성과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퇴출하는 방향으로 올해 개편된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연계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략적 재원 배분(strategy) ▲통합적 재정운용 강화(merge) ▲최첨단 분석기법(technology) ▲새시대, 새로운 틀(restructuring) ▲자율적 혁신 바람(autonomy) 등 이른바 '스마트(SMART)' 원칙에 따라 운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오월을 사랑하는 모임’ 천막농성 종료... 옛 전남도청 시민군 항쟁지 복원 등을 요구하며 광주 금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서 한 달여 간 천막농성을 해오던 ‘오월을 사랑하는 모임(오사모) 회원들이 24일 농성을 풀었다. 오사모 회원들은 “이날 농성장을 찾은 국민의 당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오늘부로 천막농성을 종료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옛 전남도청에 남겨진 계엄군의 총탄 흔적, 시민군 상황실·방송실 복원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달 22일부터 농성해왔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합참 “북 SLBM 발사”

최전방 방사포 3백여문 배치

합참은 지난 23일 “북한이 이날 오후 6시30분께 함경남도 신포 동해상에서 SL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또 “북한이 지난 2년여간 최전방 연대급 부대에 신형 122mm 방사포 300여문을 배치한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이 최근 결론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신형 122mm 방사포는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에 동원된 기존 122mm 방사포보다 사거리(최대 40km)가 길어 개성 부근에서 쏘면 경기 북부와 서울 청와대 인근, 인천 송도까지 타격할 수 있다. /연합뉴스

어버이연합 ‘알바 집회’ 의혹 확산

“청와대서 집회개시 지시 받았다” 증언 나와

보수 시민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세월호 반대집회 등에 탈북자 등을 일당을 주고 동원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논란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청와대로부터 집회 개최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어버이연합 사태는 시사저널이 지난 11일 “어버이연합이 2014년 세월호 반대 집회에 탈북자들을 동원하기 위해 2만원씩 지급했고, 그 금액은 총 2000여만원에 달한다”고 보도하며 시작됐다.

전경련과 재향경우회가 어버이연합과 어버이연합 관련 탈북단체에 자금을 지원했고, 청와대 한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 올해 초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정부를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전경련 자금이 어버이연합을 통해 다른 보수단체 및 보수매체에 흘러갔다는 보도도 나왔다.

퇴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재향경우회가 2014년 4~11월 39차례에 걸쳐 세월호 참

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의 집회를 방해하려 어버이연합회원 1200여명을 동원하고 교통비 등 명목으로 25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부가 어버이연합과 주소지가 같고 임원진이 겹쳐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통로라는 의혹이 제기된 민간단체 비전코리아에 3500여원을 지원하려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어버이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하고, 각종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고소하거나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추천회 사무총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전경련으로부터는 우회 통로로 돈을 받았으나 청와대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지우롱차 방문’ 1면서 계속

지우롱차는 한국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하지 않는 전기 승합·소형버스를 통해 한국 내 특세시장 공략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주력 생산 차종이 15~18인승 승합·소형버스는 광주에 투자해 완성차·부품공장을 건설한다는 투자협약을 광주시에 체결했다. 중국 토종 완성차 업체로는 처음으로 오는 7월부터 광주공장 설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어 광주지역 연안업체들과 협력해 연말까지 시험운을 겸한 상업용 전기차 200여대를 우선 생산한다.

2017년부터는 15~18인승 전기승합차 E6의 양산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시는 지우롱차와 협약한 투자가 마무리되는 2020년에 이 회사가 전기승합차와 휘발유·경유차 등 10만대의 자동차를 광주에서 생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시장은 25일 지우롱자동차 모기업인 장터모터 주권 회장과 주만량 양재우시장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

국법인 조기 설립 및 투자계획 수립 ▲지우롱자동차 기술인력 파견 ▲전기차와 엔진차의 혼용생산시스템 구축 ▲주권회장의 광주방문 ▲중국 정부의 투자 승인 등 조기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지우롱차는 오는 2020년까지 2500여원을 광주에 투자해 완성차·부품공장을 건설한다는 투자협약을 광주시에 체결했다. 중국 토종 완성차 업체로는 처음으로 오는 7월부터 광주공장 설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어 광주지역 연안업체들과 협력해 연말까지 시험운을 겸한 상업용 전기차 200여대를 우선 생산한다.

2017년부터는 15~18인승 전기승합차 E6의 양산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시는 지우롱차와 협약한 투자가 마무리되는 2020년에 이 회사가 전기승합차와 휘발유·경유차 등 10만대의 자동차를 광주에서 생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초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p>남</p>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여</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VIP 희망 여성 25~38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6~47세</p> <p>간호사, 은행원 25~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p>	<p>남</p> <p>의사, 변호사 32~72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p> <p>대기업 간부 36~67세</p> <p>회사원, 자영업 33~61세</p> <p>무출신 여성 희망 33~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유한바이오 클리코엔 (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oM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문의 010-3598-7080/1899-3975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고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천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출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